“내 자식 삼킨 세월호는 돌아왔건만…”

유족들 철조망에 가로막혀 접근도 못하고 한숨만

“온전한 수습·진실 규명 전까진 인양 끝나지 않은 것”

세월호 입항 목포신항 가보니

철조망 너머 상처투성이 세월호가 보인다. 뭍을 등지고 돌아누운, 푸른 빛이 조금은 남아 있는 선체 바닥은 한눈에 봐도 세월호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밤 인천항을 떠나 목적지인 제주항에 다다르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꼬박 3년을 보낸 뒤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뭍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군데군데 긁히고 구멍이 난 채로 배 바닥을 드러낸 세월호는 5~6일께 모듈트랜스포터라는 용어도 낯선 운반기계에 의지해 목포 신항만 내 철재부두 공터로 옮겨진다. 세월호는 보존이냐, 폐기냐 결정에 앞서 침몰 원인 규명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선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가 떠 있는 신항 앞바다와 신항 외벽을 둘러싼 2.5m짜리 철조망과의 거리는 대략 300m. 엄마 아빠들은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신항 철조망 울타리 앞에 터를 잡았다. 3년 전엔 엄마 아빠와 세월호를 시커먼 바다가 가로막았지만 2017년 4월엔 철조망이 대신하고 있다. 그날처럼 엄마 아빠는 정부가 허락한 시간에 맞춰 긴 줄을 서서 정부가 제공한 배에 올라 신항 앞바다에 접안된 세월호를 둘러볼 수 있다. 이마저도 유가족 몫은 3명이었으나 선체조사위원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전원 참관하도록 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60여명의 가족 전원이 세월호 코앞까지 갈 수 있었다.

가족 주검을 ‘수습’했건 ‘미수습’했건, 생때같은 자식 목숨 집어삼킨 세월호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안산에서 진도로, 세월호 침몰 해역으로, 동거차로도, 광화문으로…. 선체 인양과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3년을 헤맸던 엄마 아빠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반갑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그 무엇이다.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증거물이지만, 내 아이가 끝까지 살아남으려 발버둥쳤던 여객선이자 한편으론 정부와 선원이 저지른 범죄 현장의 무대라는 생각에서일까.

2일 하루에만 1만명 넘는 추모객이 목포신항을 찾아들었지만 세월호 엄마 아빠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동거차도 산꼭대기 감시움막에서 만났던 영석이 아빠 오영환(46)씨는 세월호가 떠 있던 진도 바다부터 목포신항까지 배를 타고 뒤따라 오느라 얼굴이 뱃사람처럼 까매졌다. 노란 옷을 걸치고서 도로 변에 아무렇게나 앉아 연신 담배를 태우며 한숨을 내쉬는 찬호 아빠 전명선(47)씨. 둘 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 아빠다. 신항 철조망 바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노란띠를 엮는 시민, ‘안산 4.16기억저장소’에 띄울 엽서를 쓰는 추모객들, 자신이 이 공간에 머물렀다는 것을 남기려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방문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철조망을 통해 신항 쪽을 보더라도 건물에 가로막혀 세월호 선체를 볼 수 없는 도도변에 유가족용 천막이 설치됐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눈을 부릅뜨면 긁힌 자국 하나하나를 셀 수 있을 듯한 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방문객과 세월호 엄마 아빠는 다른 모습이다.

3년 전 팽목항과 진도가 노란띠와 깃발로 물들었다면 이제는 목포시내와 목포신항이 노란 물결로 출렁인다. 세월호와 세월호 가족들, 추모객들 사이에 놓인 항만 철제 울타리도 온통 노란 현수막과 띠로 둘러 싸였다. 전국에서 온 추모객이 노란띠와 추모 엽서에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쓴 글씨, 안산· 광주·목포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내건 노란 현수막이 염원하는 것은 한가지다. “천만 촛불로 인양한 세월호…캄캄한 침몰원인도 환하게 밝혀지리라.”, “미수습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온전히 가족 곁으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와 마주한 모든 이들은 “세월호 선체는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빠짐없는 미수습자 수습, 침몰을 둘러싼 원인 규명 전까지 세월호 인양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었다.

/목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잊지말자” 노란우산 퍼포먼스

2일 오후 세월호가 정박한 목포신항 앞에서 광주·전남·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을 기원하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의 노란우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목포신항=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폭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에 오열·실신…10여분만에 뱃머리 돌려

세월호 가까이서 본 유족 반응

“보는 것 자체가 고통”

지난 2일 선체조사위원회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세월호 선체를 촬영, 공개한 근접 영상을 보면 세월호는 곳곳이 녹이 슨 처참한 모습이었다.

영상에 보인 세월호는 3년간 바다 속에 잠겨 있던 탓에 상당부분 부식이 진행됐고 최근 물 위로 올라오면서 부식 속도는 더 빨라져 하루가 다르게 녹이 슬어 가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한 해양 11호 선박에 탑승해 세월호를 살폈다. 60여명의 유가족들은 12~13명씩 5개 조로 나뉘어 목포신항에서 2㎞가량 떨어진 삼호어항부두에서 출발한 이후 해상에서 10여분 가량 세월호를 바라봤다. 세월호를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은 처참한 선체 모습을 보고 오열했고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애초에 보기로 했던 20분의 시간을 다 쓰지 못했다. 쳐다보는 것만도 힘들어 10여분 가량만 둘러보고는 삼호어항부두로 되돌아왔다.

단원고 이영만군 어머니 이미경(51) 씨는 “배가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이 됐다”며 “세월호가 걸레처럼 찢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정차웅군의 어머니 김연실(50)씨는 “먼저 세월호를 살펴본 유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줬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월호를 참관했지만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들이 저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앞으로 유가족들은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 매일 두 차례 해양 11호를 이용해 세월호를 참관할 예정이다. 야간작업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야간에도 한 차례 더 참관한다는 입장이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선체 보존이 원칙…맘대로 절단 불가능”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온전한 보존 통해 기억해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목포신항에 입항한 세월호를 조사한 후 선체를 온존히 보존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일 램프(차량 오가는 문)에 매달린 차량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선체 훼손 내지 변경 행위를 반복하면서 ‘선체조사위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선 “해수부 행위를 문제 삼겠다. 선체 수색 과정에서 절단은 위원회 허락 없인 불가능하다고 분명 경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 내정자는 2일 “세월호 선체는 보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견이지만 보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위원회의 선체보존 결정 역시 8명 위원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정부가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체 보존을 해야하는 이유로 “세월호 선체는 국가적 불행의 흔적이다. 불행의 기억은 남기는 것이 맞다. 정부의 무능, 직업 윤리를 저버린 선원 등…. 독일이 아우슈비츠 현장(수용소)을 보존하는 것을 보라”면서 “두고두고 우리 모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보존하는 것 자체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위원회의 업무)와 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를 보면 선체조사위는 의견표명을 넘어 선체 보존 여부 및 보존 방식까지 수립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미수습자 수색과 관련해선 “로봇캠을 활용한 선체 내 미수습자 수색 방안을 5일쯤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선체조사위가 해수부, 인양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체를 육상에 거치하려면 무게를 줄여야해서 오는 5일까지 추가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바닷물 등을 빼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선체조사위가 해수부 들러리를 서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목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첫 발견 유류품은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여권

순천교도소서 수감생활 중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나 홀로 탈출’을 감행한 이준석 선장이 미처 챙겨나오지 못했던 여권과 신용카드가 3년 만에 목포신항으로 입항한 세월호에서 발견된 첫 유류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과 9명의 미수습자 수습, 희생자들의 소지품 수거를 위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들어섰지만 승객을 내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의 유류품이 먼저 돌아온 것이다.

세월호 인양과 목포항 입항, 자신의 소지품 발견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 이 선장은 그러나 아무런 반응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이 선장은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독방이 아닌 다인실에 수감 중이며 교도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동거차도 앞바다에서의 세월호 인양, 목포신항 입항, 자신의 소지품 발견 등 세월호 관련 뉴스를 TV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이 전 선장이 수감 중인 교도소 다인실에는 TV가 설치돼 있으며 돈을 내면 신문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장의 유류품은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던 2일 새벽 5시께 세월호에서 흘러내린 펄에서 발견됐다. 선수 쪽 조타실 아랫부분으로,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선장이 해경에 구조된 장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야자 후 실종 영광 여고생 경기도서 찾아 무사 귀가

쌍나팔

○…영광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후 실종된 10대 여고생이 15일 만에 무사히 귀가해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

○…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밤 10시2분께 영광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A(15)양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후 연락이 끊긴 채 사라져 통신 추적과 수색 헬기 투입에도 2주 가까이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공개수사에 착수.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하자마자 A양으로부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엄마에게 혼날까봐 집에 가기 무섭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CCTV 분석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안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던 A양을 찾았으며 범죄피해 여부와 그간 행적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3690	1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50, 104동 1층 105호 [현대아파트] 84.99㎡	아파트	115,000,000 11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3300	2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75-12 36.4㎡ 제시외 화장실 등 35.8㎡	단독주택	23,982,400 23,982,400	일괄매각.제시외 다용도실등[건축물대장없음]포함
		동소 175-1 220㎡[맹지,하우스소재,제외]	대		
		동소 175-12 154㎡	대		
2016타경 3874	1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623 225㎡	대	21,869,800 21,869,800	일괄매각.제시외 창고포함.현황폐가
		동소 624 360㎡	대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1606번길 39-26 46.3㎡ 제시외 창고 27㎡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300	1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926 433㎡	전	26,418,900 26,418,900	일괄매각.목록3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925 1281㎡ 제시외 관리사54㎡[지상,타지상관리사및컨테이너1동소재매각제외]	전		
		동소 925-1 936㎡	전		
2016타경 3379	1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737-2 324㎡	답	90,354,000 90,354,000	일괄매각.목록2,3 현황일부구거.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43-1 1117㎡[맹지]	답		
		동소 743-2 1702㎡[맹지,목록1을통해출입]	답		
2016타경 3638	1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53 165㎡[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김정준]건물일부소재]	대	1,584,000 1,584,000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	동소 914-1 102㎡[현황대지,타인소유창고일부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979,200 979,200	
	3	동소 908-6 35㎡[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건물일부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107,880 107,88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채영문지분1/3전부
2016타경 3645	1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258 1159㎡	전	4,172,400 4,17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맹지
2016타경 3768	1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919 4519㎡	전	407,832,000 407,83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현황일부임야.목록3~5지적도상맹지
		동소 920 3663㎡	전		
		동소 924 1246㎡	전		
		동소 926 1699㎡	전		
		동소 950 2595㎡	전		
2016타경 3829	1	완도군 청산면 읍리 799 499㎡	묘지	4,657,400 4,657,400	일괄매각
		동소 803 304㎡	묘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3775	1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565 1676㎡	전	20,112,000 20,1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맹지
2016타경 3829	1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121 7933㎡[조채욱지분1/3전부.지분매각.매각대상아닌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맹지]	임야	1,375,030 1,375,03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동소 798 645㎡[조채욱지분1/3전부.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311,500 1,311,5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730 711㎡	묘지	5,014,000 5,014,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29 76㎡[맹지]	답		
	5	동소 산120-2 2579㎡[매각대상아닌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1,341,080 1,341,080	
2016타경 3836	1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432 3382㎡[소유자미상비닐하우스,수종미상수목20여주소재,매각제외]	전	47,373,400 47,373,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일부농로
2016타경 3867	1	완도군완도읍가용리95 549㎡[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37,881,000 37,881,000	하우스소재,매각제외
2016타경 3928	1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91-16 3626㎡[일부담수지,매각대상아닌시설하우스,창고소재]	전	52,981,900 52,981,9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26 1431㎡[지적도상맹지,매각대상아닌분묘1기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2016타경 4068	1	완도군노화읍동천리산165 16562㎡[매각대상아닌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16,562,000 16,562,000	맹지
2016타경 4198	1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1498 1283㎡	전	10,135,700 10,135,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맹지
2016타경 4204 2016타경 4365 [중복]	1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208-10 10476㎡	전	482,101,000 482,101,000	일괄매각.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3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녹색조경]수목다량식재
		동소 208-20 354㎡[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등기상소유자:이상심]건축물,종물,부합물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동소 208-40 9143㎡	임야		
	2	동소 926-7 1205.1㎡	답	24,102,000 24,1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0665	1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592-1 995㎡	전	45,770,000 45,7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맹지
2016타경 50832	1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산181 9421㎡[매각대상아닌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3,552,500 23,552,500	맹지
[기타]					
2016타경 3829	4	완도군 청산면 읍리 799 499㎡	묘지	4,657,400 4,657,400	일괄매각
		동소 803 304㎡	묘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4. 1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4. 24.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